

# 공채1기, 빈틈없는 업무로 정평

공채1기, 빈틈없는 업무로 정평

이미미 과장이 삼화인쇄(대표 유성근)와 첫 인연을 맺은 것은 지난 90년. 회사가 실시한 첫 번째 여성공채시험에 다른 동기 한 명과 합격하면서부터다. 국내 영업팀에 배치 받았지만 첫 여성 대졸자에 대한 현장의 반응은 차가웠고, 가정학과를 졸업한 동기생이 그만 두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도 회사를 그만뒀다. 2개월의 휴식이 지났을까 지금의 이원순 상무가 다시금 같이 일을 하자는 연락을 했고, 92년 두 번째 회사 생활이 시작됐다.

첫 번째 시련이 있어서 인지 두 번째 회사 생활은 오기가 생겨났다.

“처음으로 뽑은 여성공채인데 내가 그만 두면 여성에 대한 좋지 않을 인상을 남겨 줌으로써 앞으로 삼화인쇄에는 사무직 여성밖에 못 들어오게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엔 그것 때문에 버텼어요.”

첫 번째 실패가 도움이 됐을까 두 번째 직장 생활은 어느 듯 11년이 넘어서고 있으며, 두 번째 입사 초기 그저 ‘남자보다 더한 독한 여자’였던 이 과장은 ‘빈틈없이 마무리가 깔끔한 직원’으로 변했다.

여성이 아닌 직장인으로 대우받고 있지만 이 과장에게도 출산이라는 힘든 과정이 있었고, 지금은 육아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소정(25개월)은 17개월 동안 이모 품에서 자랐지만 이모가 다시 직장 생활을 하는 바람에 18개월 되던 때부터 놀이방에 맡기고 있고, 둘째 소연은 한달 보름만에 이웃집 신세를 지고 있다.

“남들은 날 보고 ‘독한 여자’라고 부르지만 내 자신은 직장을 포기한 채 집에서 애들만 키울 자신이 없다. 내가 보기엔 집에서 애만 키우는 여자들이 정말 대단해 보이는데, 내겐 집에서 애를 키우는 능력보다는 회사에서 일하는 능력이 더 많은 것 같다.”

아이들에겐 다른 아이들의 엄마처럼 같이 있어주지 못하는 게 여간 미안한 게 아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진 않는다. 모두들 선택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가는 것처럼, 이 과장 역시 부모의 역할과 직장여성이라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자신이 좀 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장 여성을 선택했을 뿐이다.

〈이홍우기자〉

